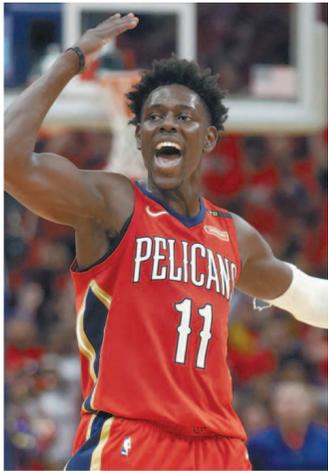


골프&

10

2018년 4월 23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뉴올리언스 PO 2R 진출 뉴올리언스 주전 가드 조루 홀리데이가 22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스무딩 센터에서 열린 포틀랜드와의 2017~2018 미국프로농구 플레이오프 1라운드 4차전 후반 3점슛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뉴올리언스는 131-123으로 포틀랜드를 꺾고 4연승을 달리며 2라운드에 올랐다. 뉴올리언스(미 루이지애나주) | AP/시사

NBA 미네소타, PO 1R 3차전 반격 1승

미네소타 팀버울브스가 휴스턴 로케츠를 상대로 플레이오프(PO) 첫 승리를 따내며 반격에 나섰다. 미네소타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 센터에서 열린 2017~2018 미국프로농구(NBA) 서부컨퍼런스 PO 1라운드 3차전에서 휴스턴을 121-105로 꺾었다.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안방에서 PO 승리를 거머쥔 미네소타는 휴스턴과의 시리즈 전적에서 1승2패를 기록했다. 52-51로 전반을 근소하게 앞선 채 마무리한 미네소타는 후반에도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3쿼터 종료 시에는 8점차까지 리드를 벌였고, 4쿼터에는 10점 차 이상의 점수차를 지켰다. 좀처럼 추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던 휴스턴은 종료 3분여를 남기고 크리스 폴까지 5번씩 퇴장하며 4차전을 기약했다. 미네소타에선 지미 버틀러(28점·7리바운드), 제프 티그(23점·8어시스트), 앤드류 위긴스(20점·5리바운드)가 3점 슛 11개를 합작하며 나란히 20점 이상을 책임졌다. 휴스턴은 제임스 하든(29점·7리바운드·7어시스트)과 폴(17점·6어시스트)이 분전했지만 미네소타의 파상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며 P O 첫 패배를 떠안았다.

권영준 등 펜싱대표팀 전국대회서 두각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56회 전국남녀중년별 펜싱선수권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 16~21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끝난 이 대회에선 권영준(익산시청), 김준호(국군체육부대), 이라진(인천광역시중구청) 등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국가대표 간의 열전이 벌어진 남자 에페에서는 권영준이 정진선(경기화성시청)을 상대로 12-11, 1점차 승리를 거머쥔다. 남자 사브르에서도 국가대표인 김준호가 이제완(성남시청)을 15-9로 꺾고 1위를 차지했다. 플러레에서는 김효근(경기광주시청)이 1위에 올랐다. 여자 사브르에서도 국가대표 매치가 열렸다. 이라진이 15년 대회 우승자인 황선아(익산시청)를 15-10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여자 플러레에서는 오하나(성남시청), 에페에서는 김보미(부산광역시청)가 각각 1위를 기록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

통산 2승 거둔 이소영 | KLPGA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 정상

벌에 쏘이고도 우승... “좋은 벌이었나 봐요”

“가려워서 계속 굼으면서 플레이”
마지막 라운드 버디 6개 우승샷
“메이저대회 정상에 서보고 싶다”

“2라운드에서 벌에 쏘였는데 좋은 벌이었나 봐요.”

프로 3년차 이소영(21·롯데)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총상금 6억원·우승상금 1억 2000만원)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며 환하게 웃었다.

이소영은 22일 경남 김해 가야컨트리클럽(파72·6810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를 묶어 5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9언더파 207타를 적어낸 이소영은 장하나(26·BC카드), 오지현(22·KB금융그룹), 남소연(27·위드원), 안나린(22·문영그룹·이상 7언더파 209타)을 모두 따돌리고 정상에 섰다. 2라운드까지 선두에 4타차 뒤진 그는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2016년 7월 ‘조정탄산수·용평리조트 오픈’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개인 두번째 우승트로피에 입맞춤했다.

이소영은 “사실 이번 대회는 크게 기대를 안했는데 우승해서 더 기쁘다. 2라운드 도중 벌에 쏘였는데, 좋은 벌이었던 것 같다. 가려워서 계속 굼으면서 플레이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3라운드 1번 홀에서 버디를 한 뒤 우승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내 플레이만 하자고 마음을 바꿔 먹었다. 18홀을 다 돌고 난 뒤에도 몇 타차지만 전혀 몰랐다”라며 “모든 샷이 잘됐다. 특히 퍼트가 잘 된 덕분에 우승을 한 것 같다. 2016년 첫 우승 때도 퍼트가 정말 좋았다”라고 우승 비결을 설명했다.

이번 우승으로 이소영은 일찌감치 시즌 목표를 달성했다. 그는 “올 시즌 들어가며 우승을 목표로 잡았다. 앞으로 1승을 더 추구하는 걸 목표로 삼을 생각이다. 메이저 대



이소영이 22일 김해에서 막을 내린 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뒤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다. 이소영은 1년 9개월 만에 KLPGA 통산 2승째를 수확했다.

회에서도 정상에 서보고 싶다”고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또한 “한국여자오픈 우승이 가장 욕심이지만 당장 다음주에 열리는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KLPGA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

다”고 다짐했다. 이른바 대체로 불리는 이정은(22·대방건설)과 2016년 신인왕을 닦았던 유양주였던 그는 경쟁에서 밀렸고, 지난해에는 톱10에만 6차례 들었을 뿐 우승이 없었다. 이소영은

“2~3년 더 KLPGA 무대에서 활약한 뒤 미국으로 가보고 싶다. 미국에 진출한다면 한국에서 놓쳤던 신인왕에 다시 한 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차준환이 22일 서울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아이스쇼 ‘인공지능 LG ThinQ 아이스 판타지아 2018’에서 화려한 연기를 펼치고 있다. 목동 | 뉴스1

김연아 뺏치는 ‘차준환 아이스쇼’

‘아이스 판타지아 2018’ 인기몰이 국내 퍼져 관람 문화 정착도 한몫

그간 국내에서 개최된 아이스쇼는 ‘피겨 여왕’ 김연아(28·은평)의 엄청난 파급효과 덕분에 늘 성공을 거뒀다. 실제로 아이스쇼 문화 자체가 김연아로부터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22일 목동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인공지능 LG ThinQ 아이스 판타지아 2018’은 ‘신성’ 차준환(17·휘문고)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아이스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컸다.

‘아이스 판타지아 2018’의 캐스팅은 화려했다. 과거 김연아의 전담코치이자 현재 차준환을 지도하고 있는 브라이언 오서가 총감독을 맡았고, 피겨 최강국으로 손꼽히는 러시아의 스타들이 총출동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금메달리스트 알리나 자기토프와 은메달리스트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 2014소치동계올림픽과 평창올림픽 페어 금메달리스트 타티아나 볼로소자-막심 트란코프(러시아), 알리오니 사브첸코-브루노 마스토(독일) 조가 환상적인 연기로 관객의 눈을 사로잡았다. 러시아 남

자 피겨 여왕 예브게니 플루센코의 연기도 돋보였다. 경쟁이 아닌 이벤트였지만, 연기 하나하나 허투루 준비하지 않은 모습에서 프로다운이 느껴졌다. 관중석 한 칸에서 차준환 등 제자들의 연기를 유심히 지켜보던 오서 코치도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차준환과 김진서(22·한국체대), 민유라(23·알렉산더 켈린(25) 조 등 국내 선수들에게도 큰 수확을 남긴 이벤트였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아이스쇼 무대에 선 것은 돈 주고도 못 살 값진 수확이다. 단순히 서로의 무대를 지켜보는 것과 함께 호흡을 맞춰 연기를 펼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주최 측 관계자는 “차준환의 이름을 걸고 개최된 새로운 아이스쇼의 흥행 가능성을 확인한 공연”이라고 설명했다.

흥행에도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총 좌석수 3500석인 목동아이스링크에 첫날(20일) 2720명, 둘째날(21일) 3170명의 관객이 몰렸고, 마지막 날인 22일에도 3300여명이 들어섰다. 이는 ‘누가 주인공이냐’를 떠나, 아이스쇼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였다.

목동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계륵 된 라틀리프? 구단들 드래프트 딜레마

첫 해만 10억 부담...효율성 의문 외인 몸값 총액 제한 등 불이익도

KBL은 26일 리카르도 라틀리프(29·199cm·전 삼성)에 대한 특별귀화선수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올해 1월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라틀리프는 KBL리그에서는 국내선수가 아닌 외국인선수 자격으로 뛴다. 라틀리프 영입을 원하는 구단은 23일부터 25일까지 KBL에 영입의향을 제출하면 드래프트 참가자격을 얻는다. 연봉 등 세부적인 계약 조건은 이미 라틀리프측과 KBL이 합의했다. 1/N 추첨 방식이기 때문에 10구단 모두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분위기는 뜨겁지 않다. 몇몇 구단이 일찍 드래프트 참가를 포기했다. 이유는 비용 대비 효율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라틀리프를 영입하는 구단은 첫 해 최소 10억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라틀리프의 연봉과 수당 이외에 에이전트 수수료, 세금 등을 모두 구단이 책임지도록 계약돼 있다. 또한 그의 몸값은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상승하도록 돼 있다. 라틀리프를 보유하게 되는 구단은 두 번째 시즌과 세 번째 시즌에 더 많은 비



라틀리프

용을 지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선수도 다른 구단이 2명 함께 70만 달러(약 7억 5000만원)를 활용하는 것과 달리 라틀리프를 보유한 구단은 라틀리프를 제외한 2명을 45만 달러(약 4억 8000만원) 이내에서 선발해야 한다.

라틀리프를 보유한 구단은 외국인선수를 1명만 쓰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 라틀리프를 선발하는 효과가 반감되는 꼴이다. 그런 결정을 할 구단은 많지 않다고 봐야 한다. 또한 라틀리프가 서울 삼성에서 뛰던 시절 국내 선수들과의 마찰로 간혹 기대 이하의 플레이를 선보였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구단들은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해 의문부호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많은 구단들이 라틀리프 선발을 위한 드래프트 참가를 조기에 포기했거나 주저하고 있다. 확실히 드래프트에 참가하겠다는 구단은 든든한 모기울의 후원을 받는 2~3개 정도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대모비스와 삼성을 거친 라틀리프의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될까.

최용석 기자

<전국> 콘도회원권 매도/매수/교환 급매각!

콘도명	이용 체인	평형	최종분양가	매각금액
▶콘도회원권 급매 금액 (단위:만원)	콘스팅 리조트 광주,남원,도고,베이스스키장,수안보,실익,계주서귀포,청원,청주,하동,한림	패밀리8(21)방1개	1,550	860
		로얄스위트(35)방3개	2,350	1,460
대명 리조트	가평,경주,단양,번산,삼척,설악,영양,영평,애수,계주,홍천,스키장	패밀리형 방1개,거실	2,450	1,880
		스위트형 방1개,거실	3,460	2,980
대명 노블리안	소노벨리제,소노벨리,델피노,발리시,양양,삼척,편산,계주	실버스위트 방2개,거실1	15,000	12,000
		골드스위트 방3개,거실1	19,800	15,000
한화 리조트	강원,대전,백암,강릉,수원,삼척,수안보,영월,용인,지리산,계주,휘닉스스키장,제문대(가평,포천,양양,강릉)	개인무기형 방2개,거실	2,900 (거제)	1,580
		법인무기형 방2개,거실	4,000 (거제)	2,980

상담문의 주시는 고객님의 “콘도1박 무료숙박 증정”

중양 콘도리조트 사업부 1566-0955